

# 일 자리를 부탁해

김경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이 열어준 일자리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일 해 볼 생각 있으세요?”

나는 22년 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 전신마비가 되었다.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지만, 다행히 보조기를 사용하여 밥을 먹고 컴퓨터를 한다. 그런데 장시간 앉아 있으면 힘들어 틈틈이 누워서 쉬어야 한다. 외출은 거의 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을 많이 읽고, 인터넷으로 컴퓨터 강좌를 듣는 것이다.

열심히 컴퓨터를 배우고 노력하여 다음해 정보화경진대회서 상을 받았고 다른 대회서도 몇 차례 받은 덕분에 복지관 이용자 중에서 내가 컴퓨터를 제법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에게 일 자리를 제안하였던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일 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나 같은 중증장애인에게 일 자리를 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매킨토시에서 중증장애인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일자리 기회조차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하고 꿈조차 꾸지 않았다. 나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복지관에 전화를 하였다.

“저도 복지관에서 일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혹시 컴퓨터 자격증 가지고 있으세요?”

“네. 컴퓨터활용능력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 하세요.”

자격증을 취득한건 2014년이였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각종 자격증을 많이 따다 고 하여서 나도 언젠가 필요하겠지 싶어 지인에게 책을 빌려서 공부를 하고 구미상 공회의소에서 시험을 보았다. 필기는 한 번에 합격하고, 실기는 긴장하여 두 번 연속으로 불합격했다. 아는 문제도 실수로 틀렸고 타자속도가 느려서 제한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 못했던 것이다. 드디어 세번째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받았다. 내 사진이 부착된 자격증을 바라보니 가슴이 뿌듯했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복지관에 출근하기 전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 과 두려움 때문이다. 내 나이도 어느덧 서른일곱이다.내 친구들은 독립하여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나는 집에서 백수로 빈둥거리며 어머니에게 반찬투정이나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죄송하였다.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머니께 화장품을 선물하고 싶었다. 나를 보살피며 밤낮으로 고생하느라 주름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얼굴에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주름이 펴져서 조금이나마 젊어 보이게 해드리고 싶었다.

출근 첫날은 긴장되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가르쳐준 것을 잘 따라하지 못하는 장애인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내가 할 일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도와주었던 장애인이 나에게 인사하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자 보람도 되고 뿌듯했다. 복지관에 가는 날이 즐거웠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 힘들지 않았다.

한 달이 되어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다. 나는 인터넷으로 어머니의 화장품을 구입하여 선물로 드렸다. 꽃처럼 웃으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좀 더 자주 선물을 사드려야겠다 다짐했다.

#### 보조교사에서 정식 강의를 맡게 되다

하루는 복지관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경식 씨가 기초반 학생들을 한번 가르쳐보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식씨를 지켜봤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 부담도 되고 자신이 없어 거절하였으나 재차 권유하기에 좋은 경험일 것 같아 선뜻 해보겠다고 하였다. 선생님이 수업할 내용을 알려주면 집에서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고 예행연습을 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요로감염으로 몸에 고열이 났다. 배뇨장애로 소변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좋지 않더니 결국 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해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아쉽지만 두 달 만에 일자리를 그만 둘 수밖에 없

었다. 병원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니 내가 남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었다. 사이버대학은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 서울디지털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 입학하였다. 수업을 듣고 게시판에서 토론도 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내년이면 졸업을 한다.

지금보다 내 몸이 건강하고 일할 능력이 갖추어진다면 그때 가서 일을 하겠다는 핑계 거리를 찾았다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서투리도 부딪쳐보고 아픔을 겪어야 성장할 수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나를 인정받으며 일하는 즐거움과 소중한 삶의 경험을 얻을 수가 있었다. 또한 컴퓨터 선생님 덕분에 정보화교사라는 꿈도 꾸게 되었다.**

나에게 언제 또다시 일자리 기회가 불쑥 찾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는다. 백수 탈출을 꿈꾸며 오늘도 나는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상상을 한다.